

# 회원사가족이 되었습니다

본 지면은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를 소개하는 면이다.  
지난달에는 세기P&C(주)가 본 협회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.  
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업체에 대해 소개한다.

| 편집자 주 |

## 세기P&C(주)

국내 사진업계 대표하는 토종기업



▶ 이봉훈 대표

세기P&C(주)(대표·이봉훈)는 카메라와 렌즈, 삼각대, 가방 등 사진관련 장비 전반을 취급하는 사진종합회사이다.

1977년 창업 이래 지난 32년 동안 매프로토, 일포드, 엘링크롬 등의 한국 판매 대리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 사진업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토종기업으로 성장했다. 특히 세기P&C에서는 세계의 사진 전문가들로부터

호평을 받는 최고 수준의 사진관련 장비 메이커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.

세기P&C에서는 30여 년간 세계 유명 사진영상 전문그룹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쌓아온 제품력, 빠른 정보,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사진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, 한국사진영상 문화 발전에 공헌하여 국내의 사진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.

얼마 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재개관한 충무로 매장은 '사진관련 원스톱 쇼핑몰'을 지향하며, 카메라와 렌즈, 삼각대와 조명, 가방 등 다양한 제품 4500여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꾸며놓기도 했다.

세기P&C의 이봉훈 대표는 협회 회원가입 소감에 대해 "협회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은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매우 중요한 일들로 보인다"며 "회원 간 서로 체감할 수 있는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기 바란다"고 말했다.



▶ 세기P&C 매장에서는 세계의 사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최고 수준의 사진관련 장비 메이커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.



▶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재개관한 충무로 매장이 있는 건물 전경

### 세기P&C(주)

- 대표 : 이봉훈
- 전화 : (02)3668-3114
- 팩스 : (02)742-3387
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외동동 143번지
- 홈페이지 : www.saeki.co.kr
- 주요 품목 : 카메라, 렌즈, 삼각대, 가방 등